

백두대간 육십령 정원화 탄력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과... 장수군, 산림정원 조성 추진 동력 마련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5일 장수군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산지관리법개정안에서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까지 예산 450억원(국비)을 투입해 전북 동부권의 백두대간 중심지역 자연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한 산림정원을 조성한다.

산림정원에는 육십령 정원센터, 테마정원(빛, 물, 꽃, 숲, 놀이) 및 숲길(육십령 이음길, 순환로, 진입로 및 쉼터 등) 조성, 육십령 캠핑장(카라반, 글램핑 등) 및 기타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사진은 육십령 모습)

이번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군은 영호남이 맞닿은 육십령 일원 정원화로 영호남 상생협력과 생활권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 으뜸인 남덕유산-서봉 겨울철 상고대와 백두대간 종주 등반에 경남 함양군 덕유교육원과 연계해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등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막대한 지역 현안사

업의 실타래를 풀어준 안호영 의원께 감사를 전한다"며 "본 개정안은 정원 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의 아름다운 백두대간 육십령을 보다 더 잘 활용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력난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

농촌일손돕기 서울시와 협력

무주군,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8명 영농현장에 투입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력난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았다. 농촌일자리 지원을 위해 무주군은 25일 서울시로부터 인력 8명을 지원받았으며 6월 3일까지 관내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 농가에 투입할 예정이다.

농촌 일자리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무주에 들어왔으며 날마다 발열 여부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인력 수급과 교통편(서울→무주) 제공을 맡았으며 무주군(구 천동농협인력증개센터)이 농가일손 수요조사와 연계, 상해보험 가입, 현장 교육, 지역 내 이동(숙소→농가)을 돕는다.

이들이 무주에 머무르는 9박 10일간의 숙박과 식사는 무주군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비로 지원하며 임금은 농가에서 지급한다.

무주군은 앞으로 청 내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과 농촌인력증개센터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 인력 수급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과의 교류, 자원봉사자 연계 등을 통해 일손 돕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무주군은 서울시와 지난 2017년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동안 체류형 귀농지원과 반딧불 농·특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 한정하며, 시장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실적을 확인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과 검증이 어려워 지원 받을

수 없으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재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지원이 미등록 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안정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최우수센터 선정

사단법인 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전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기선)의 도내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군보조금 외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공모사업비를 투입, 기업과 기관,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와

재능나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혜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극복과 자원봉사역량을 강화했으며 '인부 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 특히 방역활동 및 맞춤형 봉사활동들의 공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이동빨래방차 운영, 맛나봉사단(말바탕 사업), 해노리가족봉사단(친환경제품 사용활동),

책놀이봉사단(요양시설 책읽어주기),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역사랑나눔봉사단(주거환경 개선보수), 반딧불이의 사랑(LED태양광 설치),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나눔(화장실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매트설치), 소상공 및 다중중 시설 정기적 방역봉사활동, 재난용품 지원, 정화활동 등을 추진했으며 무주양수발전소공모사업으로 행복밥차 재료비 지원, 노후주택보수, 김장나눔행사, 연탄나눔행사등 그외에도 지역 활성화와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최종 선정

진안군은 25일 힐링관광 프로젝트 '미이 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소재를 발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4년간 국비 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진안군의 '미이 힐링 진안, 케렌시아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전라북도 2개 사업에 선정되어 문체부의 관광,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7명)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전국 8개소 선정), 현장심사, 최종심사(전국 5개소 선정)를 거쳤다. 또한 서류심사부터 최종심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의 컨설팅과 사업비 30% 지원계획, 전북연구원의 자문 등 진안군과 전라북도의 협업을 통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군은 국비 60억원, 도비 18억원 등 총 138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안읍 일원에 다양한 힐링

관광체험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여 사업 종료 후 점진적으로 진안군 전역으로 확산시켜 진안군을 대한민국 대표 힐링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으로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홍삼한방타운 치유거점 조성사업' '진안고원 치유음식 및 치유체험 특화거리 조성' '진안고원 치유형 브랜드 개발 및 로컬푸드, 건강간식 개발' 등 4개 사업이 추진됐다.

그 밖에 '헬스푸드 관광상품화' 등 연계협력사업 2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구축)' 등 관리운영사업 4개가 추진될 예정으로 이번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진안군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진안군 마을공동체팀, 농촌지원팀, 산림치유팀, 홍삼한방팀 및 원연장마을, 홍삼연구소 등 분야별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2개소 지정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임옥)는 25일 '치매안심마을'인 '진안읍'에 위치한 약국 2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하고 현관을 접달했다.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전 직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25일 지정된 '봄약국', '세계로약국'을 포함해 15개소다.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가맹점은 치매관련 정보 전달하기, 치매초기검진 권유하기, 치매의심 노인 발견 시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기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활동을 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숫자코드가 01~79, 90~99인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 홍보 행사 실시

진안군은 5월 11일~6월 14일까지를 금연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군은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을 포함해 금연 뮤지컬공연, 금연독려 플래카드 게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25일에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답에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라는 금연 슬로건을 내걸고, 시외버스터미널, 진안시장 상가 등을 돌며 금연의 중요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 및 음식점 등을 순회하며 금연홍보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지도할 예정이다.

군은 이와 함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기 흡연예방 교육, 뮤지컬공연 등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